

## 【토론 2】

### 강원 정선 김현숙입니다

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.

○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, 실질적인 참여를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
- 7쪽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전체 중앙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 4%, 위촉직 30% 대의 수순에 불과함.

- 시의 적절한 시기에 주제 발표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·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신 김 복 규 교수님의 내용에도 있음.

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, 토론과 연관되는 부분.

즉 여성 리더십의 제약 요인과 극복 방안, 리더십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.

· 먼저 발표자께서는 여성 리더십의 제약요인과 극복 방안을 위한 기본적 선결과제로

- 여성이 지닌 특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비하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함.

- 여성이 지닌 특성을 빛낼 수 있는 기회제공

- 모험심과 도전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특성개발

○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

· 기회제공(수확확보)

· 교육과 훈련(자질연마)

· 네트워크 형성(협동적 창의력 함양, 힘의 결집)

○ 과연 이 3가지의 선결과제와 3가지 전략만으로 충분한가?

· 문제는 10쪽에서 농촌사회 거버넌스와 여성 리더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?

· 선결과제는 인식에 대한 문제로 여성에 대한 사고전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대응방안이 필요함.

· 더욱이 여성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도시 농촌 등 각각의 위치에서 정립해야 할 것임.

○ 예를 들면 농촌 여성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 현재 한국 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참여에 농촌 여성이 얼마나 참여가 적극적으로 가능한지?

(농촌여성들의 리더십 참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제약 요인을 좀 더 보충할 필요성)

· 농촌 지역의 공동화 고령화에 의한 문제를 볼 경우, 과연 기회 제공으로 수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감.

- 교육을 통한 자질 연만에서도 농촌의 여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받기위한 여건도 충족되었는지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

- 힘의 집결을 위한 네트워킹에서 농가가 처해있는 각각의 입장이 다를 경우 자신의 생업을 접고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인지.

- 등의 문제의 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.

마지막으로 최근들어 정부를 비롯한 기업, 시민단체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성(relation-ship)강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. 발표자께서도 마지막 대응방안의 하나를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킹 참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전방통합 내지는 후방통합의 연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구분 되었으면 함.

본인의 생각으로는 농촌 여성, 지역농협, 시군 기술센터를 연계하는 후방적 통합에 대한 문제를 축으로 하는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;

수고하십시오

김 현 숙(011-363-1468)